



17일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핸드볼 조대부고와 서대전고 경기에서 조대부고 문건호(가운데)가 서대전고 수비수위로 점프슛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진아, 전남에 첫 금 선물

사이클 여자일반 500m 독주 우승 광주 황용하 남고 역도 아쉬운 '銀'

제87회 전국체전 첫 날인 17일 전남 사이클의 희망 유진아(나주시청·동신대)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광주는 기대했던 금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은메달을 따내며 산뜻한 출발을 했다.

황용하(광주체고 3)는 포항해양과학고에서 열린 남고부 역도 62kg급 용상에서 금메달에 1kg이 부족한 144kg을 들어올려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으나 광주에 첫 메달을 안겼다.

개인전에서 광주는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복싱 고등부 패더급에서 이상아(광주체고 1)가 강원 박준하를 꺾고 1회전을 통과했으며 대학부 라이트급 손원창(한국체대 2)도 제주 김가람을 제압하고 메달을 향해 순항했다.

또 일반부에서는 패더급 김원일(광주선발)과 정연수(광주선발)가 각각 전남 이현승과 신명훈을 누르고 2회전에 올랐으며 해비급 김수영(광주선발)도 대전 김혁을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단체경기에서 남고·여고·남대·여



대 테니스는 1회전에서 모두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으며 막판까지 선전을 펼친 핸드볼 남고부 조대부고도 대전 서대전고에 23대28로 패해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전남의 유진아는 충북 음성벨로드롬에서 열린 사이클 여자일반 500m독주 결승에서 37초 516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진아는 지난 2001년 중학교 3학년때인 소년체전부터 500m 독주에서 6연패를 이뤄 여자 500m 부문 최강자로 자리매김 했다.

역도 남고부 56kg급 손수민(완도 수고2)은 인상에서 101kg을 들어올려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사이클 남고부 정대권(금성고 2)이 스크래치, 3km개인주발에 김용호(금성고 3), 4km단체주발(금성고), 단체스프린트(금성고)에서 은메달을 확보해 18일 금메달에 도전한다.

또 여고부 나야름(미용고)이 500m독주와 2km개인주발에서 은메달을 확보해 남고 금메달을 노리고 있으며 3km단체주발에서

도 은메달을 확보했다.

단체전에서는 축구 남고부 광양제철고가 대구공고를 4-1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향한 컨디션을 조절했고, 남대부 한려대도 제주 선발을 3-2로 누르고 2회전에 올랐다.

한편 광주와 전남은 18일 승마, 수영, 사이클, 양궁 등에서 무더기 금맥을 캐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18일 수영 남고부 박경원이 평영 100m에서 금빛역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레슬링에서도 금메달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궁 여고부 이특영(광주체고)은 다관왕, 승마 마장마술의 최정상인 대회 5연패에 도전한다.

전남은 사이클 여고부와 남고부가 이미 은메달을 확보해 무더기 금메달이 기대되고 있으며 수영에서도 금빛 물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국체전 이모저모

광주시 직원 선전기원 불공

○전국체전 지원에 나선 광주시청 직원들이 인근 사찰을 찾아 선수들의 건강과 선전을 기원. 개막 첫 날인 17일 광주시 문화관광과 소속 직원 10여명은 감천 황악산 직지사를 찾아 불공을 드리며 선수들의 무사안전을 기원.

광주시 관계자는 "동국제일가람으로 불리는 직지사가 위치한 김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이곳에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아 찾았다"며 "선수단 전체가 그동안 흘린 노력의 댓가를 수확했다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테니스 스코어판 '수동식'

○테니스 예선전이 열린 김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경기 운영요원이 부족해 선수들이 직접 스코어판을 붙이는 등 진풍경을 연출.

특히 20개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는데다 불보이 등 보조 경기 운영요원조차 배치되지 않아 선수가 직접 스코어판을 붙이고, 떨어진 공을 찾아다니는 등 대회 운영에 미숙한 점을 드러내 각 시·도선수들이 불평.

예선전을 펼친 광주시 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심판이 직접 스코어를 불러주는 경우는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20개 경기가 동시에 펼쳐지다 보니 초등학교 선수 등 경기 운영요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모양이다"며 한숨.

핸드볼 오빠부대 열띤 응원

○남고부 핸드볼 경기가 열린 안동체육관에 여중생 '오빠부대'의 열띤 응원이 펼쳐져 눈길.

이날 경기를 치른 조대부고와 대전서대전고의 경기에 자매결연을 맺은 안동북여중 1학년 80명과 경안여중 1학년 40여명이 막대풍선을 동원해 열띤 응원을 펼친 것.

특히 이들 여중생 응원단은 선수들을 몰라 '15분 화이팅' '조대부고 화이팅' 등 골이 터질 때 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전·후반 40분내내 목이 터져라 응원전을 펼쳐 체육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즌 상금 3억원 주인공은?

올 마지막 메이저대회 KPGA선수권 내일부터
신용진·강경남·장지만 치열한 우승 경쟁 예상

“3억원의 주인공은 누구?”

한국프로골프(KPGA)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LIG 제49회 KPGA선수권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총상금 4억원(우승 상금 8천만원)이 걸린 가운데 부산 해운대골프장 골든·로얄코스(파72·6천638야드)에서 열린다.

국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KPGA 선수권대회는 외국인과 아마추어 출전을 배제하고 '토종프로' 130여명이 승부를 겨룬다.

이번 대회의 관심사는 남자 골프 최초로 시즌 상금 3억원의 주인공이 가려질지 여부다.

'부산 갈매기' 신용진(42·LG패션)과 20대 기수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 장타자 장지만(30·동아회원권)이 경쟁자들이다.

15일 끝난 비발디파크오픈에서 톱 10에 들어 강경남을 제치고 상금랭킹 선두를 재탈환한 신용진이 홀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경기를 펼쳐 일단 유리한 위치.

올 시즌 우승은 1회 밖에 없었지만 상위권에 꾸준히 들어 차곡차곡 상금을 쌓아올린 신용진은 시즌 2승과 3억원 고지 등극을 한꺼번에 노린다.

상금왕 타이틀 획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번 대회를 강경남과 장지만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각오다.

강경남은 시즌 3승과 상금왕을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깨차겠다는 계산이다. 장지만은 이번 시즌 신한동해오픈과 한국오픈 등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 큰 대회에 유난히 강한 면모를 발휘했다.

시즌 상금액은 신용진이 2억6천560만원, 강경남이 2억5천839만원, 장지만이 2억5천122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번 대회가 이들

3명만의 잔치는 아니다. 비발디파크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최진호(22·보그너)가 내친김에 2연승을 노리고 있다.

또 올 시즌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 1승에 목마른 정준(35)과 2승을 노리는 석종용(38·갤러웨이), 박부원(41·링크스골프) 등 30~40대 중견급 골퍼들도 호락호락 우승을 넘겨주지 않을 태세다.

비발디파크오픈에서 공동 4위까지 올라 관록을 과시한 일본프로골프 무대의 만형 김종덕(41·나노소울)도 작년 개막 전 이후 국내 대회에서 우승컵을 다시 한번 치켜들 태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대로 떨어지면 안돼!

17일 덴마크 아서스에서 열린 39회 세계체조협회인선대회 여자부 경기에서 루마니아의 산드라 이스바사가 이단 평행봉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코치 전원 유임

'미운' 골짜에서 4강 진출로 다시 태어난 KIA가 코치진 전원을 유임키로 결정했다. 서정환 KIA 감독은 17일 "최근 정재공 단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칭스태프 전원과 재계약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모두 유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 감독은 "코치진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올 한해 모두 열심히 잘해줬고, 현 코치진이 있었기에 4강 진출도 가능했다"면서 "내년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공 KIA 단장은 "목표인 4강을 이루는데 감독과 코치들의 공이 컸다"며 현 코치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KIA는 감독을 포함한 19명의 코치진 전원을 내년 시즌에도 팀을 이끌게 됐다.

KIA의 코치진은 서정환(감독)을 비롯해 박승호(수석), 김봉근·김정수(이상 투수), 이진열(타격), 백인호(수비), 김종운(주루), 김지훈(배터리), 김태룡(수비 및 전력분석), 아마시타(트레이닝·이상 1군), 차영화(감독), 김종모(타격), 한희민·김태원·이강철·이광우(이상 투수), 정인교(배터리), 구원서(수비), 곽현희(트레이닝·이상 2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1, 2군 코치진의 변동 여부는 유동적이다. 서 감독은 "좀 더 지켜본 뒤 1, 2군 코치진의 변동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1, 2군 코치들의 자리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